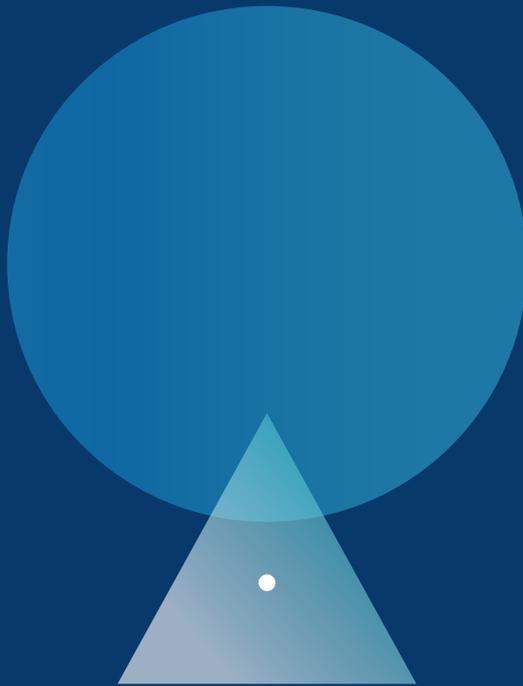




2016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모색 포럼

시민 자생적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방안



일시 2016. 10. 21. (금) 14:00

장소 대구예술발전소 3층 수창홀

주최  대구광역시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

주관  대구문화재단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2016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모색 포럼

시민 자생적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기 간 : 2016. 10. 21(금) 14:00 ~ 17:00

장 소 : 대구예술발전소 3층 수창홀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모색 포럼

좌장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14:00~14:10	10'	인사말	심재찬(대구문화재단 대표)
		좌장	오동욱(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14:10~14:20	10'	기조강연	개인의 행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 나기주(생활문화진흥원 원장)
14:20~14:40	20'	발제	정책 : 생활문화 정책의 오늘과 내일 고영진(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14:40~15:00	20'		사례 : 지역공동체에서 생활문화의 역할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 대표)
15:00~15:20	20'		사례 : 생활음악-소수를 위한 음악에서 모두를 위한 음악으로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5:20~15:30	10'	휴식	다과 및 음료
15:30~17:00	90'	지정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포함-종합토론 토론 1 : 이정미(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2 : 신호진(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팀장) 토론 3 : 이수철(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토론 4 : 김수미(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선임연구원)

목 차

기조연설	1
개인의 행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 나기주 (생활문화진흥원 원장)	
발 제 문	4
1. 생활문화 정책의 오늘과 내일	5
-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2. 지역공동체에서 생활문화의 역할	10
-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 대표)	
3. 생활음악 - 소수를 위한 음악에서 모두를 위한 음악으로	19
-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토 론 문	32
이정미	33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신효진	37
(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팀장)	
- 바람직한 생활문화 정책	
이수철	46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 생활문화와 지역	
김수미	50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선임연구원)	
- 발제자 임승관의 ‘지역공동체에서 생활문화의 역할’에 대한 발제문을 읽고	

2016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모색 포럼

기 조 연 설

시민 자생적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개인의 행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문화

나 기 주

(생활문화진흥원 원장)

문화의 정의가 매우 다양합니다. 생활문화도 역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문화는 2014년 1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생활문화를 대개 일상생활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문화를 의미하였으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는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생활문화’는 그 주체와 목적, 성격과 활동형태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이 주체입니다. 주체를 국민으로 하여 국가 단위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전의 생활문화는 생활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생활문화는 문화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셋째,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문화 활동의 동기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생활문화 활동 주체가 능동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화의 객체나 수용자로서가 아닌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문화 활동이 직업적이거나 전문적이라기보다 자기 생활의 일부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유형·무형의 문화 활동이어야 합니다. 유형, 무형을 가리지 않으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생활문화 관련 규정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되고 생활문화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새롭게 마련된 것은 이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 36개국 중 행복지수는 24위에 해당하는 낮은 단계에 있으며 자살률은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지수를 높이고, 문화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개인의 소외, 공동체의 붕괴, 불안과 고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문화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번 정부 출범 시에 문화 융성을 국정 기조로 삼았고, 그 전략 과제인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한 법적 장치와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생활문화의 진흥과 발전은 곧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성장 요인이 되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일상적 삶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창작·발표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participation)하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할 것이며, 문화적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미적 감각과 창의성 등을 향상시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에도 유익을 줄 것입니

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한류 확산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생활문화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앞서 말씀드린 2014년 1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문화기본법에는 생활문화를 포함한 문화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생활문화의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지원 등 생활문화 정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 제정과 더불어 생활문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고 생활문화동호회를 지원하고 전국 생활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문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역마다 수립되고 추진하여야 할 바람직한 생활문화 정책은 지역주민이 일상적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생활문화 참여가 개별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나눔과 교류를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웃과 행복을 함께 만들고 누리는 ‘공존의 지역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 정책과 주민 참여가 건강한 생활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활문화 정책은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문화 지원 정책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문화 정책은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생활밀착형 정책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문화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라는 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활문화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우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문화 현장에서 많은 노력과 맘을 흘려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생활문화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모색 포럼

발 제 문

시민 자생적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1. 생활문화 정책의 오늘과 내일

고 영 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본 생활문화 정책의 오늘과 내일

고 영 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I. 들어가면서

생활문화센터가 새롭게 시작된 '14년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시행과 함께 생활문화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 해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 지원 의무가 명시되었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생활문화 참여율이 제시되었다.' 16년 현재, 지역 주민의 자발적·능동적 문화 활동 공간이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문화융성의 거점으로서 생활문화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올해 4월, 제5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가 제시된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 정책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되어왔던 생활문화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II.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현재 :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생활문화정책은 △생활문화 시설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개인 및 동호회의 발표·교류의 장, 문화자원봉사 등 활동 지원 △지원기반으로서 전문 인력 양성과 생활문화 진흥 기관 설립 △대상별 맞춤형 지원(소외계층, 노년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생활문화 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1.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14년부터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는 3년간 102개소가 조성되었으며 그 중 49개소가 개관되어 운영 중이다.('16.10월 기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동시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유형별 컨설팅, 생활문화센터 대상 이용자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교육,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도시재생지역 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3년차로 접어드는 현재, 센터 당 월평균 868명의 주민이 방문*하고 있으며, 432명의 동호회 회원(재방문 포함)이 이용하고 있다. 센터 당 활동하는 동호회 수는 평균 13개,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만족도는 9.39점으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 2015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연구(예술경영지원센터)

< 생활문화센터 우수 사례('15.12월 선정) >

센터명	세부 내용
서산 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생활문화센터('14.9.18)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 <2014.9~2016.4월> 50개 동아리, 370명 활동 중, 30~40대 이용률이 높고 (68%), 총 46회의 공연 및 전시 개최
두송 생활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목욕탕을 리모델링한 대표적인 유휴 공간 활용 사례로, 거점형 공간으로서 다목적홀, 마주침 공간 등의 디자인이 우수 ○ 동호회 대표와 지자체 담당자간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간 구성



또한 정부는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문화의집 등의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 생활문화동호회의 발표·교류의 장, 문화자원봉사 등 활동 지원

생활문화정책의 또 다른 틀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동호회 발표·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 단위 주민 동호회 발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별·장르별 동호회 교류를 지원하며, 전국 생활문화제 개최('16.10.29~30/북서울꿈의숲)를 통해 생활문화 활동의 전국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호회 활동의 유인을 제공하고, 동호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하는 국민들을 보다 많은 문화·체육 현장과 연계하기위해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문화폼앗e'(www.csv.culture.go.kr)를

‘14년 12월 구축하였다. 1,300여개의 활동처를 기반으로 4만2천 여 명의 회원을 참여하고 있다. 최근 도서관 자원봉사시스템과 통합이 완료되었으며 청소년까지 회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인의 동호회 활동 확대를 위해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등 새로운 생활문화 수요층으로 학생과 직장인을 지원하고 있다.

3. 전문 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기관 등 지원 기반 마련

생활문화 진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문 기관(5개소)을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경력자를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시범 사업(5인 선발)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생활문화동호회와 생활문화센터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올해 처음 생활예술 코디네이터를 통해 동호회와 지역예술가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문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인력의 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와 더불어 생활문화진흥원이 4월말 출범하였다. 자발적 문화활동과 생활문화시설을 지원하여 국민의 능동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지역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확립과 함께,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

4. 문화취약계층,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생활문화활동 지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호회 발표·교류의 장, 문화자원봉사와 동시에 문화취약계층,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생활문화활동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임대아파트, 농산어촌,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최대 3년)하여 문화를 통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이후 아마추어 어르신 예술가들에게 문화를 통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및 문화동아리 지원), ▲최종적으로 고령층 문화일자리 창출을 통해(어르신 문화일자리 양성사업) 어르신들이 문화를 통해 실질적·직접적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Ⅲ.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미래 : 향후 정책 과제

앞서 살펴본 생활문화 진흥 정책은 아직은 초기 단계로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 모색 포럼인 만큼 몇 가지를 제안하고, 대구의 특성에 맞춰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첫째,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여건 마련과 함께 기존 시설과의 기능 재정립 및 협업 추진이 필요하다. ‘14~’15년의 경우 많은 수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 중이었으나 ‘16년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관센터별로 유형별·단계별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센터의 자가진단에 따른 자체 기획 프로그램

램을 운영해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17년에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지역의 인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인력을 양성하여 초기 배치 지원을 한다면, 지역에서는 정확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하고 배치·활용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는 생활문화센터 외에도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등 생활문화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부족하며 기관 간 프로그램 및 역할이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다. 중앙 차원의 협력·협의 구조 설정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능과 역할 조율 등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향>

추진 방향	■ 생활문화센터 참여 확대 및 대국민 인지도 증가 ■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 ■ 기존 시설과의 기능 재정립 및 협업 추진 ※ 생활문화동호회 참여율 '14년 4.2% → '18년 6% 목표	
추진 과제	참여 확대 및 대국민 인지도 증가	1. 유형별 성공모델 육성 2. 동호회 장르별·지역간 교류 촉제 확대 3.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확산 거점으로 활용
	안정적 운영여건 마련	4.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양성 및 배치 5. 생활문화센터 지원 법적 근거 강화 6.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기존 시설과의 협업 추진	7. 생활문화센터 인증 제도 설계

둘째, 생활문화에서의 전문 인력의 역할,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방법,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을 어떻게 생활문화 전문 인력으로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생활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은 외부에서 파견되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육성되어야 하는 인력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생활문화센터, 동호회 등)조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에서부터 센터 간, 동호회 간, 센터-동호회와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 새로운 수요창출 및 컨설팅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역할과 모습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때, 인력 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연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센터와 동호회 등 생활문화활동의 자생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생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전담 인력 및 운영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필요하나, 향후 회비, 대관료, 동호회 공연 및 전시 등을 통한 관람료, 마을 카페 운영 등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동호회의 경우에도 정부는 동호회 간 교류와 발표의 장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며, 동호회의 자발성·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짧은 지면을 통해 생활문화정책의 현재와 앞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들을 담아보았다. 전문가만의 예술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생활문화에 대해 포럼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2. 지역공동체에서 생활문화의 역할

임 승 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 대표)

생활예술의 역할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을 중심으로-

임 승 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 대표)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 대다수의 생활인들은 장기화되는 경기불황과 소득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을 복지, 주거, 교육, 정보, 담론 등 다양한 분야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문제는 직접적인 삶에 문제로 나타난다. 그 증거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분쟁국가나 도시 사람들보다도 낮은 행복지수를 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10년 가까이 이어오는 이 같은 불안사회현상의 지속성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밝혀지면서 이는 장기간 미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다. 사회적 관계문제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와 함께 주변과의 친밀한 소통 관계가 급격하게 소멸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고립감을 느낀다. 이는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지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 결국 이 고통의 해결은 권력과 권위에 대한 배타적 동일시나 투영으로 자위하며 자기보다 낮은 집단이나 개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예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예술 창작이 보통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나온다고 보았을 때 지금 예술은 역할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예술의 사회적 기능으로 생활예술을 주목 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술을 매개로 공동체 회복과 일상적 삶에 질을 높이려는 생활예술은 사람이 병이 났을 때 항생제 처방이나 수술 등 외적인 보충과 작용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다르다.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지원하는 내부로부터의 자생적 방식이다. 생활예술이 장르기능 향상을 위한 연습보다, 공감적 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관계 맺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이다.

전문예술과 다른 '생활예술'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평등이다. 생활예술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인한 구별짓기를 배제할 수 있다. 생활예술을 매개로 만난 사람들은 부담 없이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평등하고 편안한 신뢰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이는 스포츠와 같이 잘하고 못하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드러나는(공정하게 모두가 받아들여더라도) 자연스러운 '경쟁'이 없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느끼는 열등감과 무력감에 대한 저항의 공감이기도 하다. 이렇게 즐거운 소속감을 통해 구성원은 사적인 문제들을 공적인 문제로 전환하여 드러내고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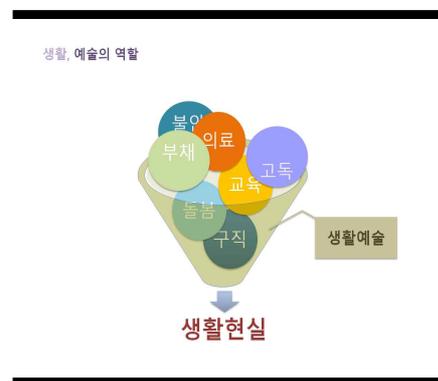
둘째는 협동이다. 이러한 공감적 소통 능력을 통해 개인은 크고 작은 현안 토론에 개입하고 때로는 함께 해결하면서 협동의 효과와 놀라운 가능성을 체험한다. 구성원들은 이렇게 상호의존성을 높이며 생활 속 민주주의를 몸으로 체험하고 희망을 그리게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론장의 정당성을 합의 과정의 ‘보편적 참여’와 이를 통한 권력과 권위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것에서 찾았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활문화 활동을 매개로 누구나 사회적 차별과 불합리의 벽에 구멍을 내고 신뢰를 만들어 가며 ‘사회자본’을 쌓아간다.

그 동안 많은 곳에서 삶의 생활공간인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 육아, 돌봄 등의 많은 문제를 민주적 합의방식을 통해 협동하며 해결했다. 그렇게 마을의 담장이 사라졌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이 생겼으며, 반찬가게가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됐고, 잘못 집행된 세금이 주민의 지속적이고 단결된 요구로 마을 기금으로 되돌려져 주민을 위한 작은 회관을 건립하기도 했으며 없어질 뻔 한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켜지기도 했다. 참여나 개입을 통해 발언의 몫이나 기회가 없던 많은 시민이 지역정치와 지역경제에 대하여 생활인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이룬 놀라운 결과들이다. 중심문화 및 사회적 담론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참여 시키는 역할을 하는 생활예술의 사례는 매우 매력적인 민주주의 실현 과정이기도 하다.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고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 회복과 연대는 어려운 객관적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희망을 상상하게 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생활예술의 치유기능은 고통을 위로하고 잊게 하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고통을 드러내고 원인을 대면하여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예술이 다양한 생활현안을 풀어 생활 속 곤란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이 구별된다. 예술이 주민과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이다.

예술의 확장된 사회적 기능을 시인 심보선은 자신의 저서 『그을린 예술』에서 ‘작업장 공동체’로 이름 붙인 예술동호회의 특징으로 본다. 기능과 숙련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인간적 호흡의 교환, 협력적 작업,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꾸려 나가는 데서 오는 행복감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예술활동은 주로 동아리 형태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와 사회와의 관계를 역어 나간다. 결국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서로 만나 그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이유는 특정 예술장르의 기능 습득과 숙련에 국한하지 않는다.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존재감을 바탕으로 불안을 이기고 지금보다 나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민이나 시민은 씨앗과 같다. 씨앗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지원 사업은 어떤 꽃으로 피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과업 목적의 결과로 발현되서는 안 된다. 씨앗 개별의 유전자와 영양분을 믿고 존중하는 것이 시작이다. 도움과 지원은 특정한 양분의 공급이 아니라 받아하는데 필요한 온도와 습도 즉 자생성과 자발성을 위한 온전한 환경을 파악하고 제공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 받아하고 핀 다양한 꽃이 건강하다. 문화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하고 건강한 생태계이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울창한 숲 같은 것이다.

시민의 문화욕구가 대안정책의 출발이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이하 센터) 1996년부터 문화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그 후 2005년 재 창립을 맞아 낙후된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예술가나 정부정책이 아닌 시민문화운동에서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민이 적극적인 문화수용자로, 생활권내 일상영역에서 창작과 향유, 유통의 건강한 주체가 되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토양을 만드는 시민문화공동체‘문화바람’이다.

오랜 동안 인천은 인근 타 도시에 비해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이 오지 않았다. 인천 시민은 공연을 잘 보지 않아 기획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즉 인천에 열악한 문화 환경은 그 책임이 시민에게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센터가 인천시민들에게 문화수용자운동을 설명하고 CMS회원을 모으기 시작한지 2년 만에 400여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는 센터가 96년부터 8년 동안 연평균 회원이 50명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 곡선이다.

우리가 회원이 되어 돈을 모아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무료로 관람하자는 문화수용자 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2006년 첫 번째 공연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콘서트’ 때에 2회 공연을 딱 채운 1600명의 관객을 보면서 인천시민은 공연을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못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인천 시민에 그간의 평가가 잘 못된 것임을 알았고, 또한 변화에 대한 요구와 참여의지가 있는 것도 조심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 ‘우리가 원하는 공연을 나부터 보고 즐기자!’ 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에서 성공한다. 즉 시민 입장에서 내가 좋아야 한다. 우리, 사회로 발전하는 변화는, 결국 각자 개인의 실천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 문화의 민주화를 넘는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이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자신감과 주인의식이다.

이렇게 늘어난 문화바람 회원은 연 5회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는 회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1회 자신이 원하는 장르를 직접 배우고 연습하는 동아리회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예상하지 못 했다.

동아리 속성

문화 수용자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회원들 스스로가 듣고 싶은 강좌와 강의, 배우고 싶은 동아리를 만들었다. 특별히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동아리도 있지만 대개는 좀 더 잘하는 회원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동아리가 대부분이다.

이전까지 평범한 삶을 지내온 사람들이 동아리에 조심스럽게 들어와 참여를 결심하는 첫 동기는 대부분 기능 습득을 위한 자기만족이다. 기타를 잘 치고 싶고, 젊은 시절 꿈을 다시 이루어 보려는 바람에서 용기를 낸다.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실천이 많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그 행복의 원인은 개인(나)이 아닌 ‘우리’로 바뀐다. 경쟁적 이해관계 없이 같은 취미의 공감대로 만난 사람들,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동등한 사람들. 서로를 위해 간식을 사오고, 바뀐 머리스타일에 감동하며, 생일과 이름을 기억한다. 불안한 고용현실과 냉정하고 고된 일상을 견디게 하는 공감적 소통이 문화를 매개로 위로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모든 회원은 처음 몇 개월은 동아리를 운영하는 매개자(문화 활동가)에게 의지한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회원은 동아리 운영자와의 관계에 따라 활동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회원을 돕기 위해서는 깊은 대화나 세심한 배려가 있는 준비된 뒤풀이가 공식일정으로 되는 것이 좋다.
- 전문예술가가 운영자로 들어가는 경우 기능의 수월성을 내세워 기존 구성원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사가 강습진도에 쫓기어 기능습득 외에 회원의 다양하고 일상적인 논의를 금기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이다.
- 시민문화활동의 매개자는 장르기능과 교수능력 외에 구성원들의 관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십이 더 요구된다.

제일 오래되고 회원이 많은 동아리부터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은 사회공헌 현상이다. 관계 맺고 있는 고아원 등 시설에 찾아가는 공연을 논의한다. 물론 힘들게 결정하고 시간을 더 내어 연습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충족하는 조건은 능숙한 기능만이 아니다. 오랜 동아리 활동 속에서 쌓인 자존감과 서로에 대한 신뢰이다. 필자는 이 단계에 들어선 동아리는 나와 우리를 넘어선 사회적 단계로 가장 안정적인 높은 수준으로 본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주변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개선 방법을 논의하고 나름의 실천들을 상상한다. 매개자인 상근자들은 그 결정을 응원하며 돕는다. 건강한 문화사회 구성원으로 주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생활예술 동아리 성장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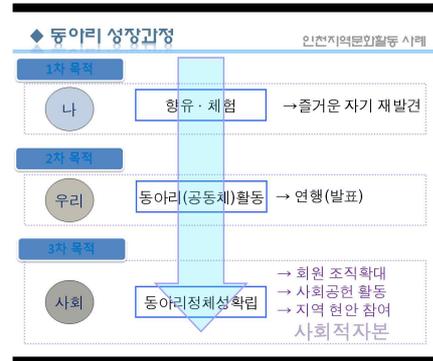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의 첫 동기는 기능 습득을 통한 자기만족이다.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결심과 용기와, 기타를 조금 잘 치고 싶고, 밴드의 꿈을 다시 이루어 보려는 바람에서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그 바람에 대한 만족은 개인(나)에서 우리로 대상이 발전한다. 경쟁과 이해 관계없이 같은 취미로 공감대를 이룬 사람들이 곧 서로를 위해 간식을 사오고, 일주일 만에

바뀐 머리스타일을 서로 칭찬하고, 생일과 이름을 기억한다. 불안한 고용현실과 고된 일상 스트레스에서 견디는 힘과 의지가 동아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오래되고 회원이 많은 동아리부터 일어나는 다음 만족은 사회공헌과 같이 공익적인 활동과 의지에서 온다. 함께하는 구성원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살아온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방법을 논의하고 나름의 공동실

천을 모색하여 실행하는 것은 최상의 만족이다. 더 높아진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은 공동체로 부터 안정과 지원, 익숙한 편안함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생활예술 발표의 장

인천의 문화예술동아리는 약 2000개 정도가 여러 형태로 모여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잘 볼 수가 없다. 서로 만나기도 힘들다.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없어서이다. 그나마 있는 공간은 개인소유로 시간과 돈을 들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많은 세금으로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아시아 필 오케스트라, 국제적인 미술관, 박물관, 작가 스튜디오를 경쟁하듯이 만들어 낸다. 물론 필요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설립의미를 시민과 공유하여 용도와 목적을 함께 결정하였다면 이 후 많은 세금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줄었을 것 이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서는 두 번째 난관은 발표의 장이다. 부평의 복합 문화 공간 아트홀‘소풍’의 경우 2006년 회원들이 시민과 함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 했다. 시민기금을 포함해서 회원의 출자금을 모아 작은 소극장을 만든 것이다. 당시 인천에 하나뿐인 소극장이었다. 모두가 바라던 꿈이기에 현실이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원들의 자존감은 한층 더 높아졌다. 또한 작은 극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예술가와 다른 생활예술동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졌다.

일 년에 한번 이상 동아리 정기발표를 하고 이틀에 걸쳐 동아리 축제도 한다. 특별히 신입회원에게 동아리 정기발표회는 처음으로 조명을 받으며 관객 앞에서 자기를 들어내는 자리이다. 아내와 남편, 가족이 와서 응원을 해도 떨린다. 대기실의 청심환과 소주병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연을 마치면 가족들은 새로 발견한 자랑스러운 예술가와 멋있는 가수로 공연자 가족을 맞이한다. 전과 다른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호명 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동아리들이 연습을 하고 일정 수준에 이르면 큰 무대에서 발표 할 기회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공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성격이 프로 예술가들의 그것과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 동아리의 발표활동은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동아리)에서 서로 배려하고 어울리면서 쌓아온 높은 자존감의 표출이다.

제3섹터 공유공간 시민문화공간 ‘놀이터’

공연장이 생기고 동아리 회원이 늘면서 안정적인 연습공간이 필요했다. 민원을 해결할 방음공간이다. 사무국 공간을 줄여 이사하고 남은 보증금에 동아리 회원 출자금을 모아 동아리 연습공간인 ‘부평 놀이터’를 회원들과 함께 만들었다. 한 겨울 두 달 동안 공사를 했다. 우리가 디자인 하고, 공사한 최고의 방음실과 모임공간을 함께 마련했다.

‘놀이터’의 모든 사업과 재정은 동아리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에서 기획하고 결정한다. 매년 진행되는 ‘끼가 번쩍’ 시민동아리축제와 회원 체육대회, MT 등 회비조정과 예산사용내역도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이밖에 다른 동아리에 대한 이해와 요청, 회원들의 다양한 생활어려움도 논의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운영위다.

- 구성원이 공간에 대한 자발성과 창조적인 활용을 가지려면 우선 그 공간에 대한 주인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권력이 나누어져야 한다.
즉 예산 집행권한과 사업기획 결정권, 정보 접근권이다.
- 문화공간의 경우 공간에 대해 주인의식이 없으면 속성상 이용자는 공간시설의 취지와 관계 없이 수동적인 민원인이다.
- 기쁘게 희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며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용자로서 활용범위가 미리 결정돼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미 이러한 착한손님 정체성을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 공공문화공간이 이용자에 의해서 스스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을 넘어 권력을 나누어 스스로 통치를 하는 것이다.

시민문화공간의 성장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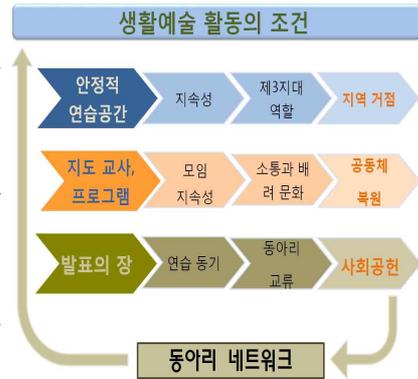
- 공간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은 그에 맞는 구조와 단계를 거친다.
- 공간 운영이나 사업기획 권한은 구성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변경(보류, 폐기) 될 수 있어야 한다.
- 3년 이상 꾸준히 자율적으로 운영된 공간의 경우 매개자의 노력에 따라 포괄적인 일상생활 의제를 나누는 공동체로 발전하며 공간운영에 대한 비전과 규율은 그것에 맞게 보완하게 된다.
- 이 단계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 등 생활민주주의가 안정화 되면서 지역 현안을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된다.

‘문화바람’도 이러한 민주적인 소통과 결정과정이 참여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있었다. 2011년 두 번째 동아리 연습 공간 ‘남동놀이터’와 ‘시민 문화 살롱’이 있는 4층 건물의 one_stop 시민 문화 공간 ‘문화바람’에 도전하였다. 인천문화재단의 문화공간지원사업의 도움으로 한시적이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고 일억 원이 넘는 공사비와 칠백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스스로 감당하는 자생력을 4년간 유지하였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함께 바라는 꿈의 실현은 그 한계

가 없다. 2013년 CMS문화바람 회원은 1200명이 넘었다. 그 과정에서 ‘문화바람’ 회원들은 인천에 살면서 내가 바라는 문화 환경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씩 느꼈다.

공간운영에서 매개자 역할

공간 상근자들의 갈등해결 능력과 함께 권리와 과업에 대한 입장 일치도 중요하다. 매개자, 코디네이터 등으로 부르는 실무 상근자들은 이용주민과의 접면에서 활동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직접 미치기 때문이다. 생활예술공간의 의미와 역할 등이 상근활동가들의 학습과 수평적 토론을 통해 조율되고 온전하게 합의 되어야 비로소 시민과의 여러 사업 속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이 결정되어 실행한 후에도 다시 주민과 만나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을 실행하는 상근활동가들은 지역과의 정서적인 일치가 중요하다. 주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창조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생활 속 다양한 의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공간 활용의 예는 마을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돕는 분들이 두부나 콩나물을 키우는 공동작업장으로, 마을 회의 장소로, 주부들이 뜨개질 하며 나눔 장터를 준비하는 곳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의식과 자생력 지원

지역에 자생적인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에 자생력은 공간유지 능력이다. 자발적인 커뮤니티들이 자생력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공간 유지비용의 증가이기 때문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보면 그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까지 문화 예술 공간 지원 방식은 행정의 관리감독을 받는 위탁이나 한시적인 조건부 대여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런 지원 방식은 외부의 정치적 압박과 조정, 또는 행정규범에 의한 활동 범위의 제한 등으로 구성원의 자유로운 자발성과 다양한 사업구상이 제한된다.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구성원에 의해서 활성화되게 하려면 이용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 이용자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실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한다. 주인의식의 핵심은 재정 운영과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는 정보와 관련 지식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전체의 예산과 규모를 알면 그 안에서 조화롭고 가능한 자신의 요구 규모를 조절하여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업을 위한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된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화에서는 위기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주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공간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없으면 지도 감독과 통제는 가능하지만 구성원은 이용의 불편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된다. 브라질 뽀루투 알레그리라는 작은 도시 ‘참여 예산제’를 민주주의 모범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주민이 권력을 갖고 마을의 주인이 되었을 때, 행정으로는 불가능한 현안이 해결되고, 희망적인 대안이 실현되는 창조적인 힘을 자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통제의 환상’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가 이 상황에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같은 조건이지만 만족감과 삶에 질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생활예술의 지원이 일반 예술지원과 다르게 설계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트렌드나 예술적 완성도에 의해 그 결과물이 상대적 평가되는 전문예술과 달리 생활예술은 결과 보다는 과정에서 얻는 의미, 삶의 활력과 생활의 긍정적 요소가 되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즉 어떤 결정이 비록 내 바람과는 다른 것이 결정 되었다고 해도 그 합의 과정에 평등한 참여가 배려되었다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예술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과 동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철학자 존 듀이는 ‘문화’는 허공에서 만들어진 혹은 자기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인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과의 장기간 쌓이고 쌓인 상호작용의 소산이라고 한다. 우리는 문화적인 정치, 문화적인 삶, 문화적인 생활 등 문화적인 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쓴다. 이는 좀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평등하다는 신뢰에서 오는 소속감에 대한 희망이다. 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기며 동아리 활동을 하고 돈과 시간을 내는 많은 시민들은 무엇보다 문화적인 삶을 바라고 문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3. 생활음악 - 소수를 위한 음악에서 모두를 위한 음악으로

강 윤 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2. 국내오케스트라 활동 현황

만돌린, 플루트, 가야금, 풀신포니, 가야금, 색소폰

7	15일(목)	대극장	20:00	희망의 나라	현대지동처그룹필하모닉	75
					과천뮤즈챔버	64
					김포심포니와 서울그라티아	58
		M씨어터	20:00	어제와오늘 그리고 내일과 함께하는 하모니의향연	예그리나윈드	36
					무궁화시니어윈드	54
					새라새	42
8	16일(금)	대극장	20:00	세대를 넘어 樂페스티벌 (inter generational 樂festival)	광진청소년	80
					하나고등학교필하모닉	59
					송파뮤즈	71
		M씨어터	20:00	가을, 추억의 향연	요벨팝스	55
					필레오	43
					인천윈드	45
9	17일(토)	대극장	14:00	가을, 三色의 유혹	마흔윈드	62
					마산용마고동문윈드	47
					국방대학교팝스	46
			19:30	아름다운 하모니, 설레임! 가을풍경이 되다	강남윈드	50
					한울림윈드	57
					서울색소폰	55
		M씨어터	14:00	청춘, 사랑 그리고 인생	더행복	50
					지음	54
					한국대학생연합	41
			19:30	가을 하늘에 명상의 선율을 따라~~	소니투스플루트	46
					삼성전자노필	63
					예그린	57
체임버홀	14:00	삼색단풍의 행복한 초대	할미꽃하모니카	25		
			백아미오카리나	35		
	19:30	세 친구들의 오페라, 모던클래식, 그리고 영화이야기	서울만돌린체임버	29		
			미추홀클러리넷	26		
중앙계단 아외무대	16:00	아외공연	MS필하모닉	21		
			해피비어러스&라인	33		
10	18(일)	대극장	17:00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한양대학교오케스트라 하니클랑	30
					테헤란밸리윈드오케스트라	65
					연합공연	400

3. 국내 오케스트라 활동 현황

팝스 오케스트라, 오카리나, 클라리넷 등등 다양한 악기와 클래식/현대/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 공연일정 및 프로그램

연번	일자	극장	시간	공연테마	단체	인원
1	9일(금)	중앙계단 야외무대	16:00	아외공연	미멜과카리스만들린	44
					서울메트로팝소오케스트라	30
2	10일(토)	체임버홀	14:00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하는 가을스케치	의정부윈드	35
					안양소리나눔	31
			19:30	잊혀진 동심과 클래식 사이에서....	양상불서울아트	28
					드림챔버	33
				아마빌레	41	
				밀레니엄플루트	35	
3	11일(일)	체임버홀	17:00	한층 성숙한 음악인을 꿈꾸며 일요일밤을 불꽃이다	단국공고동문윈드	32
					신은혜색소폰	29
					아르누스윈드	22
4	12일(월)	M씨어터	20:00	가야금에서 바이올린까지 황금의 레시피	신상계초오케스트라	63
					서울감원오케스트라	47
					양정윈드오케스트라 Y.W.O	87
					유석국악관현악단 어울림	36
5	13일(화)	M씨어터	20:00	꿈나무들과 함께 하는 천상의 하모니	한빛명학교	20
					새학오케스트라	46
					송실중학교오케스트라	62
					목은가온누리오케스트라	63
					원촌드림오케스트라	58
6	14일(수)	대극장	20:00	소리로 하나 되는 추.아.락.秋.夜.樂	홍대부속초등학교오케스트라	77
					서울국제교 벨리르테오케스트라	75
					덕수윈드오케스트라	89
					나너다	85
		M씨어터	20:00	내 나이가 어때서	예음색소폰	42
	울프랜즈윈드				54	
				경북윈드	51	

II. 생활음악의 개념과 참여 동기

1. 아마추어/커뮤니티/생활음악의 개념

[아마추어 의미]

아마추어

"학문, 스포츠 또는 그 외의 활동 등에 전문적 또는 금전적 이유가 아닌 즐거움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

(a person who engages in a study, sport, or other activity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financial benefit or professional reasons)

아마추어 연주자

"음악을 선망하지만 금전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자"

[생활음악의 개념]

생활예술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이나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교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

생활음악

아마추어음악과 커뮤니티음악의 특징, 곧 "비전문성/비금전성"과 "지역성" 및 "공동체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개념

[아마추어 음악의 단원 유형]

구 분	특 징
성인 초보자 The Adult Novices	-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으며, 뒤늦게 악기나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유형
은퇴한 직업연주자 The Retired Professional Musicians	- 직업연주자로 은퇴하고, 아마추어로 연주 활동을 계속 하는 유형
직업연주자 포기유형 A Professional Dropout A	- 음대를 나오고, 직업연주자로 활동하다 경력 개발이나 결혼출산 이후 직업연주자를 포기한 유형 (대부분 여성이 여기에 해당함)
부업 음악가 Music as a Second Career	- 어린 시절 음악을 배우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음악가로 활동하는 유형 - 다른 직업에서 새롭게 음악을 배우고 시작한 유형
음악교사 Music Teacher	- 음악교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전공 악기 또는 다른 악기로 아마추어 단원으로 활동하는 유형
직업연주자보다 더 잘하는 아마추어 Amateur Musicians who Plays as well as the Professionals	-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배웠으며, 직업 연주자보다 좋은 실력을 가졌으나 취미로 활동하는 유형
직업연주자 포기유형 B Professional Dropout B	- 직업연주자의 길을 걷다 외부적 요인(질병, 고) 등으로 연주자를 포기하였다가 다시 연주를 시작한 유형

2. 생활음악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

- 생활음악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는 *진지한 여가*로 접근할 수 있음
- 아마추어 음악활동가 : 준 전문가적 특성(near professional)을 갖고 있음

차원	하위항목	내용
개인적 혜택	개인적 풍요 (Personal enrichment)	경험에 대해 소중함을 느낌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기술, 재능, 지식을 향상시킴
	자아표현 (Selfexpression)	향상시킨 기술, 재능, 지식을 표현
	자아이미지 (Selfimage)	긍정적 자아 이미지 또는 참여자들과 동질감을 통한 독특한 정체성 발견
	자아만족 (Selfgratification)	단순, 표면적 만족과 깊은 만족을 모두 충족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심신의 재생을 도움
	금전적 보상 (Financial return)	진지한 여가활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
사회적 혜택	집단 친화력 (Group attraction)	같은 진지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면서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낌
	집단 성취감 (Group accomplishment)	여가활동을 해내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룹 차원의 노력과 성취. 도움을 주고받거나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 일어남
	집단의 유지와 발전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group)	도움을 주고받거나 이타적인 행위를 받음으로 써 그룹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줌

Ⅲ. 예술 생태계 내에서의 생활예술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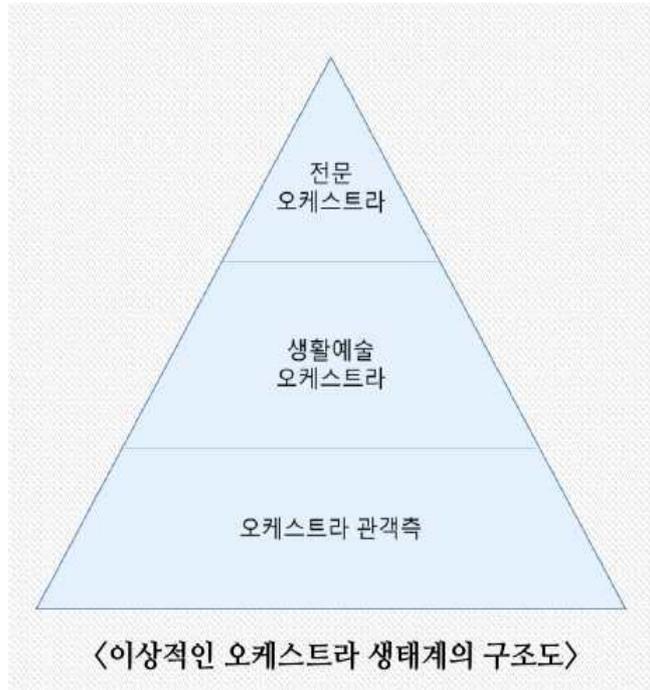
1. 독일 오케스트라를 통해 살펴본 전문예술 오케스트라의 생태계

<p>오케스트라들의 연합</p>	<p>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심포니 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전세계 심포니오케스트라 중 25%가 있음 - 독일 통일 후 구조 조정이 됨 <div data-bbox="247 734 769 86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공립 오케스트라 수 총 단원 일자리 수</p>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1992년 168개</td> <td style="font-size: 2em; color: blue;">➔</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2010년 133개</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1992년 12,159개</td> <td style="font-size: 2em; color: green;">➔</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2010년 9,922개</td> </tr>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오케스트라의 객석 점유율은 정부로부터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 - 젊은 세대를 관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로 연합 	1992년 168개	➔	2010년 133개	1992년 12,159개	➔	2010년 9,92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예술 오케스트라와 즉흥적으로 결합한 시민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공연을 보여주는 것 - 2014년부터 시작. 2016년에는 베를린, 브레멘, 프랑크푸르트, 오더, 쾰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른 등 5개 도시로 확장 <div data-bbox="944 824 1145 943"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케스트라 음악 관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도 - 오케스트라 연주가 오로지 전문 예술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1992년 168개	➔	2010년 133개	1992년 12,159개	➔	2010년 9,922개		



2. 국내 전문예술 오케스트라 생태계의 변화

-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오케스트라상이 정립되고 있는 시기
- 당대의 아픔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
- 고급 예술은 그에 적합한 아우라만 가지고 있으면 관객의 이해 여부나 소통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지금의 오케스트라는 관객과 전문오케스트라의 순환구조가 필요함
- 생활예술오케스트라가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됨



- 관객,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전문오케스트라가 상호 순환되는 생태계여야 전문예술 오케스트라도 새롭게 발전하는 길을 열 수 있음

IV. 해외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역사 및 현황을 통해 살펴 본 시사점

1. 역사적 / 정치적 배경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대 후반 높은 경제성장 하면서 의식주 이외의 것 들에도 관심. • 이러한 수요에 맞춰 70년대 이후 음악고등교육기관이 급증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개인들의 모임인 동호회들이 생겨나기 시작.
<p>콜롬비아 및 남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후반 예수회 선교단이 교향악 악기를 예배에 사용. 유럽 사제들이 토착민에게 악기를 가르치면서 악기가 전도와 문명화의 중요한 수단이 됨. • 19세기 후반 중남미 신흥 대도시에 음악학교들이 건립되면서 아프리카-남미 토착민의 리듬과 악기가 결합된 연주로 발전.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정착 하던 시기와 함께 커뮤니티 오케스트라 시작. 활발한 아마추어 합창단체와 축제들이 교향악단의 창단에 기여. 유럽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유럽 전통에 뿌리를 두고 오케스트라를 조직. • 미국 건국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 집회에서의 음악 활동이 커뮤니티 뮤직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 최초 커뮤니티 오케스트라는 “오크파크 앤 리버 포레스트 교향악단”(1931)
<p>아프리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오케스트라 음악이 선교사들을 통해 유입 • 아프리카 전통의 악기가 오케스트라 음악에 편성되어 있음 • 서구적 기준에서의 전문 혹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인종차별정책이 성행했을 시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문 클래식 음악 분야에 개입을 하여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활용 • 아파르트헤이트 정부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백인 중심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급속하게 침체됨 • 커뮤니티 오케스트라의 경우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2. 계층적 / 지역적 특징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커뮤니티오케스트라는 도시와 지방이 크게 다름 • 도시: 전문오케스트라와 협업 기회가 많고 높은 연주 실력을 추구. 연주자 자신의 만족 위주. • 지방: 높은 유대감을 기반으로 도서산간 지역에서 공연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연을 함.
<p>콜롬비아 및 남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오케스트라의 단체가 없는 지역에서 연주. • 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할 수 없는 상황의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 • 국가 및 국제 행사에 참여해 도시와 국가의 대표. • 전문 연주자 일자리 제공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0년간 미국 공립학교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줄면서 저소득 계층학생들의 악기 교육이 어려워져 현재 커뮤니티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한국과 유사하게 어릴 때부터 악기를 배울 수 있었던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활동. • 커뮤니티 오케스트라는 음악적, 사회적, 지역사회 가치를 제공. 또한 전문 오케스트라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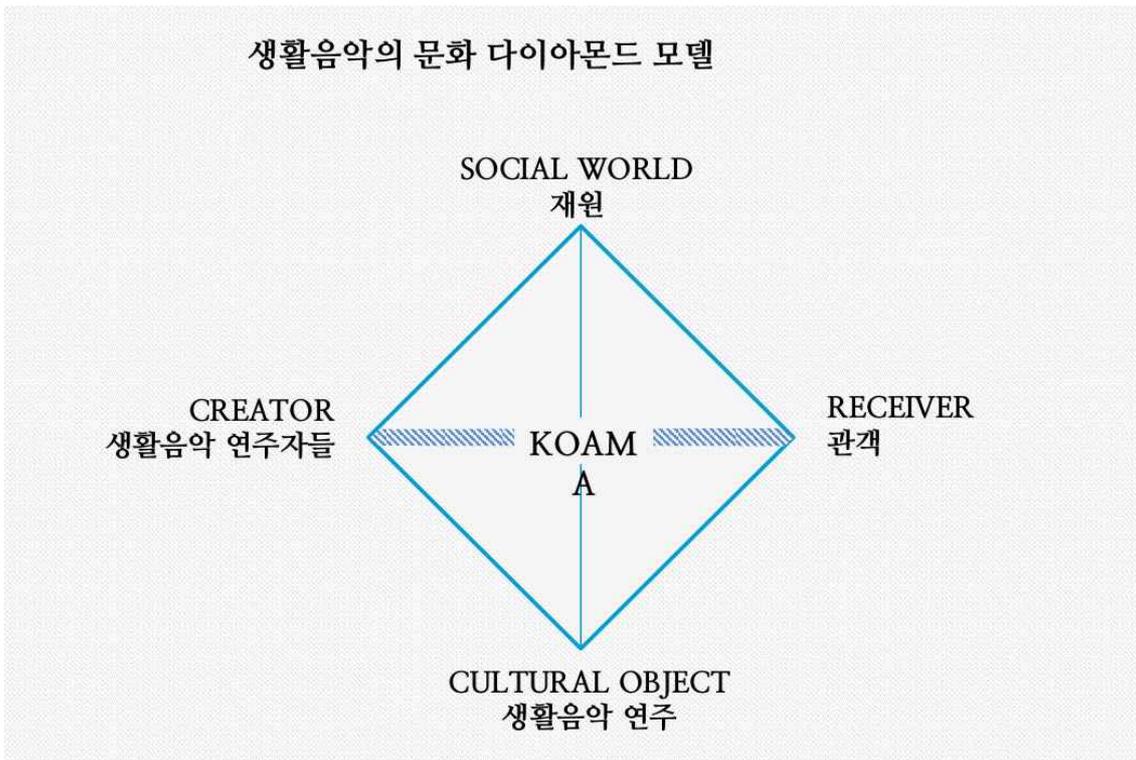
3. 음악 전공자들의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참여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연주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두 집단 간에 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음.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참여자들은 이를 위해 상당액의 참가비 내야함.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자치 및 주민 참여적 예술 활동이 강함. • 사회 전체적으로 전문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 •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의 초기 설립자 및 활동가들이 전문예술가였음.

4. 지원 정책

<p>영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년대부터 예술위원회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NEA(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 지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공연장 지원 등을 받음. • 1935~1943년 U.S. F7government's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에 의해 많은 커뮤니티 오케스트라 프로젝트가 많은 음악가, 교육자, 연구자들에게 지원 받음.
<p>콜롬비아 및 남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와 바투타 재단이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포럼을 통해 네트워크 구성 촉진. • 커뮤니티오케스트라 재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비영리 지위 유지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민간 기업, 시 정부, 주 정부로부터 재정 보호 받음.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문화부가 지원하는 공공 정책 없음.
<p>남아프리카공화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운영진, 이사진 구성을 갖추어야 정부나 민간단체,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전문 오케스트라와 머큐니티 오케스트라가 재정 지원 뿐 아니라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동일한 법의 적용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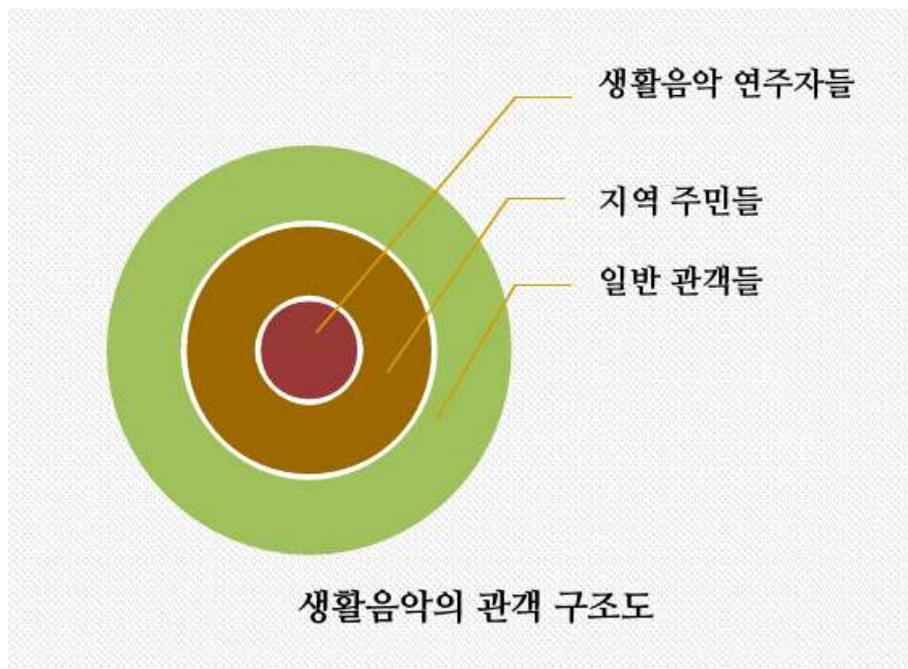
V. 생활음악의 전망과 지원 방안



1. 관객 확보

- 생활음악의 관객

- 1차 관객 : 생활음악에 참여하는 연주자들
- 2차 관객 : 생활음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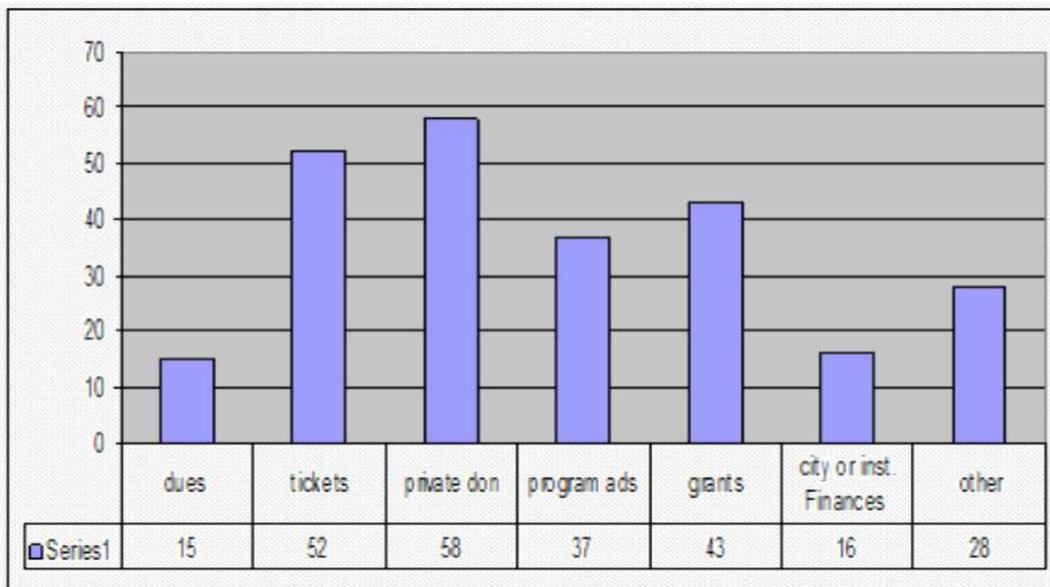


2. 재원 조성

- 해외 각국의 생활음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음
 - 티켓 판매 및 개인 후원, 그리고 연주회 프로그램 광고비 등에서 출연
 - 동시에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국내 생활음악의 경우 대부분 회비로 조성
 -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토대로 생활음악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은 그 조직의 자생성 및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근거가 됨으로 참여자들의 회비 지출은 필수적
 - 그러나 연주 무대의 대관이나 연습 공간의 확보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는 공공자원의 투여가 필요함

•미국 생활음악 단체의 재원 출처



- “생활예술음악인협회(KOAMA)”와 같은 조직이 필요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을 갖춘 자발적 민간 조직
 - 생활음악의 문화 다이아몬드에서 그 중심에 자리
 - 생활음악 단원들이 서로 관객 품앗이를 해주고, 공공의 재원을 적정한 기준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된 대표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얻어진 결론으로 공공 재원을 활용하는 현명함이 요구

✓사적 취미 활동에 왜 공공의 재원이 투여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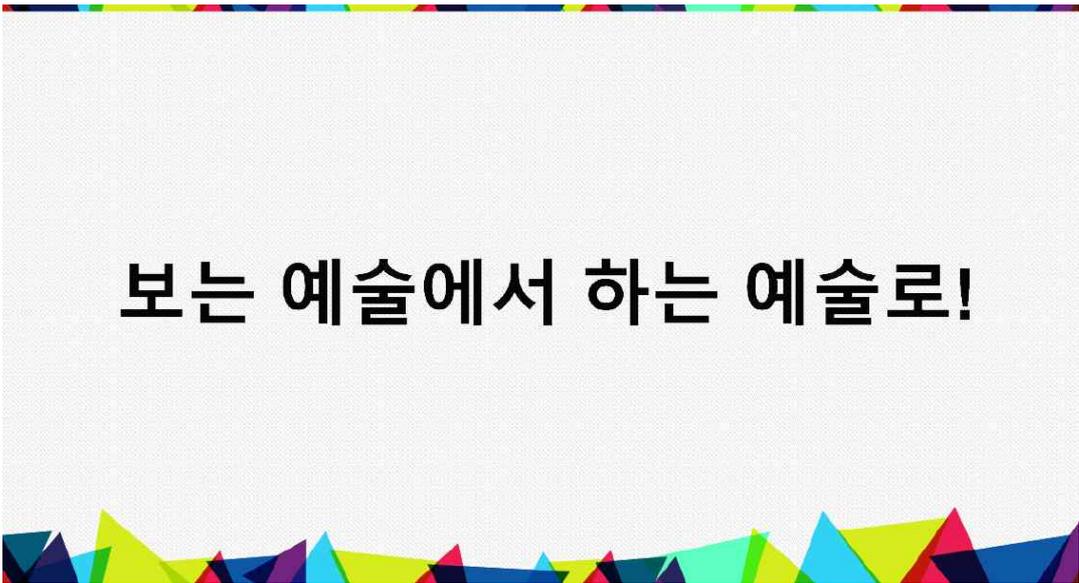
- 생활음악은 이미 본질적으로 ‘사회적 예술’
- 생활음악은 전문음악인들의 새로운 직업적 장으로 기능
- 궁극적으로는 전문음악생태계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예술에 대한 투자

3. 공간 조성

- 공공 기관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할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음
- 생활예술 활동의 당위성과 필연성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음
- 공간은 대부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장소(예: 주민 센터)에 대한 이용권 확보가 필요

❖ 미국 생활예술오케스트라

- 대학교수나 강사가 지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대학에 마련된 공간을 연습장 혹은 공연장으로 대관 할 수 있음
- 대학과의 연계는 공간 조성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연결 될 수 있음
- 비전공자와 전공자 사이의 인식 상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사회적 기능도 가능



보는 예술에서 하는 예술로!

2016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모색 포럼

토 론 문

시민 자생적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1.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이 정 미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¹⁾

이 정 미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1. 생활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방향성 정립

첫째, 주민 주도의 자생적 문화 생태계 구현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예술동아리를 문화주체 형성의 요람으로 양성하여 문화 활동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주체적 창조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나눔 등 '지역 공헌적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제도권 내 동아리 활성화 전략 수립과 더불어 지역별·동아리별 특성과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원화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은 제도권 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비 제도권 내 활동을 지원하는 전략을 펼치고, '문화취약지역'은 주민의 수요, 주체성, 지역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예술동아리를 시민주체 창조모델로 육성하여야 한다. 생활예술동아리의 열정을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시민의 창의적 활동이 살아날 때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시민들에 의한 정책 개발로 진화하도록 해야 한다.

2.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첫째, 상시적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속성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되,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문화 활동들이 사회 속에 안착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직접 지원은 생활예술동아리가 가지는 자생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적 예산 지원 형태보다는 학습과 공헌활동 등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예술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확대로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연계되도록 생활예술동아리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 및 단체, 시설, 공간 등의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생활예술동아리 발전을 주도하는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 등 비전 제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생활예술동아리 육성정책의 총괄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인력·공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추진 시 예견되는 문제와 관련 여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예술동아리 육성을 위한 능동적·전문적 대응을 하는 한편,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지속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직접적 지원 외에 학습적·공간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동아리의 기량 향상과 더불어 심화 학습 수요에 따른 강사 지원 등 학습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활동공간이 부족

1) 본 제언은 대구문화재단의 연구용역으로 대구경북연구원(2016)에서 실시한 '생활예술동아리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임.

한 생활예술동아리를 위한 장소를 지원하고,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 공헌활동 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넷째, 생활예술동아리 실태와 수요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예술동아리의 주체, 지역, 규모와 성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장르별 동아리 현황, 구·군별 분포, 성별·연령별 분석, 활동 인원수 등 동아리별 요구 분석 등을 통해 지역 생활예술동아리의 토양상태를 확인하여 생활예술동아리 간 및 생활예술동아리와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 확산, 생활예술동아리 활동의 기여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유연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생활예술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

첫째, 네트워크의 자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생활예술동아리 네트워크 구성·지원은 동아리의 자율성·자발성이 확보되어야 네트워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과 운용규모는 최소화하고, 단계적 네트워크 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연습 공간(기존시설 활용, 임대료 지원)과 발표 공간(공공시설의 내·외부)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공간 확보와 지원으로 네트워크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생활예술동아리 네트워크 종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예술분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활예술정책·사업, 매개인력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단위 축제정보에서 동아리 참여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생활예술동아리 관련 인프라, 이벤트와의 적극적 연계

첫째,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場)으로서 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센터’란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 거점이자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소비자는 수동적인 문화소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시설은 ‘문화의 민주화(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 Culture for everybody)’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이 되도록 하는 한편, 생활문화센터는 ‘문화민주주의(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 Culture by everybody)’를 실현해 나가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예회관 등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한 지원이다. 공공 문예회관, 동아리,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각 주체들의 특성을 활용한 공동체 문화를 부흥하고, 지역 내 시설과 공간·강사·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예술축제 등을 통해 생활예술동아리의 발표 무대와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단발성 프로젝트 단위로 행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축제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5. 생활예술동아리 매개인력의 전략적 육성

생활예술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는 매개인력(Coordinator 등)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매개인력인 코디네이터는 시민과 생활예술을 연결하는 가교(bridge) 역할을 한다. 문화 매개 인력은 모든 문화 활동 참여자가 포함되지만 대체로 지역공동체, 문화시설·단체 등에 소속되어 문화서비스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서 문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양한 지역문화 생태계와 활성화된 전달체계로서 문화콘텐츠와 향유시민의 연결을 통해 실현하는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에서는 ‘문화인력’, ‘지역 문화 전문 인력’ 등으로 표기하고 그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프로젝트 단위의 일회성 기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문화 매개인력의 근로환경은 지역문화의 역량이 축적되고 문화정책의 추진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첫째, 문화 매개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매개인력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매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 활동결과에 대한 사례발표와 평가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매개인력 활동관리 및 경력증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 문화 매개인력의 역량 확대와 자기계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 매개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반 자료(DB 와 통계 등)가 필요하다. 매개인력 활용·관리·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지역문화 매개인력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여, 매개인력을 분류하고 세분화하여야 한다.

셋째, 생활예술동아리 매개인력 활동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단위의 단발성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단위, 1년 이하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매개인력의 근로환경으로는 경험과 역량 축적이 어려운 현실이다. 즉, 정확한 정책의 종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조적 작업이 불가능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매개인력은 시민의 문화권을 위한 중심 연결시스템이므로, 그 역할을 명확화·세분화하고,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2. 바람직한 생활문화 정책

신 효 진
(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 팀장)

바람직한 생활문화 정책

신 효 진

(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 팀장)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문화기본법(2013.12), 지역문화진흥법(2014.1) 제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문화권) 보장과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국가 문화정책의 목표를 문화예술의 수월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던 것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선진적이고 사회적인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정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더불어 문화융성위원회를 설립하고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의 문화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이란 과제를 통해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진흥 정책 추진에 따라 국민의 생활문화 참여 및 수요가 확산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안정적인 생활문화 정책 지원을 위한 집행기구로서 생활문화진흥원을 2016년 5월 4일 설립하였다.

생활문화진흥원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 활동 지원 및 국민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의 근거를 기반으로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를 위한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이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방향>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공간	새로운 자기표현과 창조의 공간	관계형성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주인인 주민참여 문화공간 ·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및 장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의 학습, 체험, 생산의 공간 · 삶의 가치와 재미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일상의 문화, 지역의 생활문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간 관계 맺기 ·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문화가 형성되고 축적되는 장

생활문화센터는 시설의 위치와 규모,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데, 생활권형은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마을주민들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며, 거점형은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지역 생활문화 네트워크 허브 기능 및 생활문화관련 정보제공 등의 멀티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의에 의해 주민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주도적 문화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생활문화센터 유형>

기본공간	생활권형	거점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동호회 등)을 위한 공간지원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생활문화동호회 형성 지원 ·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 · 주민 상호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체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형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능 및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등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 · 생활권 시설에서 지원하지 어려운 생활문화 활동, 창작 및 발표 등의 공간 지원
위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시·군·구 단위로 조성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00㎡ 내외 · 기본공간 + 필요한 권장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1,000㎡ 이상 · 기본공간(다목적홀, 공연장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의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공간 (50㎡ 이상) · 주민자율공간 (50㎡이상, 방음실 최소 1개 이상) · 공동체 사물함 (25㎡ 이상) · 화장실 · 사무실 ·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공간 (50㎡ 이상) · 주민자율공간 (50㎡이상, 방음실 최소 1개 이상) · 공동체 사물함 (25㎡ 이상) · 화장실 · 사무실 · 창고 · 다목적홀 (150㎡ 이상) · 공연장 (300㎡ 이상)
권장공간 (특성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놀이방 · 공동체 부엌 · 스튜디오 (녹음실, 영상편집실) · 공동체공방 · 야외공연장 및 활동공간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2016년 동안 17개 광역시·도 총101개 생활문화센터가 선정되었고 2016. 10월 현재 49개 센터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다.

<생활문화센터 개관 현황>

(2016. 10월 기준)

	시 도	시군구	시설명	구 분	유 형	운영 방식	개관일	노 년 인 구 비
1	부산	사하구	두송 생활문화센터	유휴	거점	직영	2015.5.29	도시
2		부산진구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직영	2016.3.4	도시
3		중구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유휴	거점	직영	2016.7.20	도시
4	대구	북구	대구북구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직영	2015.7.17	도시
5		남구	대덕문화전당 대덕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직영	2015.5.2	도시
6		달서구	달서 생활문화센터 (웃는얼굴아이들세상)	기존	생활	민간위탁(문화재단)	2016.9.9	농촌
7		달서구	달서 생활문화센터 (웃는얼굴아트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재단)	2016.4.29	도시
8	인천	남구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원)	2016.4.30	도시
9		동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직영	2016.9.2	도시
10		중구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동마당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재단)	2016.6.25	도시
11	광주	서구	농성문화의집 농성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민간위탁(문화의집)	2015.7.30	도시
12		서구	서구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서구문화센터)	2016.7.20	도시
13		광산구	광산문화원 광산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원)	2016.3.28	도시
14	대전	서구	둔산1동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직영	2015.7.30	도시
15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민간위탁(문화원)	2015.2.10	도시
16		고양시	이람마당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재단)	2015.8.17	도시
17			호수마당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민간위탁(문화재단)	2015.9.7	도시
18	수원시	수원시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원)	2015.8	도시
19			지동 창릉마을 창작센터	유휴	생활	직영	2015.12.24	도시
20			경기 생활문화센터 다시리	유휴	거점	민간위탁(문화재단)	2016.6.11	도시
21	양주시	777 생활문화센터	유휴	생활	직영 주민자율	2015.10.12	농촌	
22	강원	화천군	화천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사)관악공동체라디오	2016.4.21	농촌
23		양구군	동면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직영	2016.6	농촌
24		동해시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유휴	거점	민간위탁(예총)	2016.7.28	도시
25		영월군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직영	2016.9	농촌
26	충북	괴산군	괴산 생활문화센터	유휴	거점	직영	2015.11.10	농촌

27		충주시	충주 생활문화센터	유휴	생활	직영	2016.9.20	도시
28	충남	서산시	서산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직영	2014.9.18	농촌
29		아산시	온양문화원 온양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원)	2015.7.23	농촌
30		금산군	금산 아깨동무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의집)	2015.9.15	농촌
31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직영 주민자율	2016.5.30	농촌
32		부여군	부여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민간위탁(문화원)	2016.7.25	농촌
33		전북	전주시	삼천문화의집 삼천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민간위탁(문화의집)	2015.9.12
34	진북문화의집 진북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의집)	2015.9.16	도시
35	효자문화의집 효자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의집)	2015.9.18	도시
36	인후문화의집 인후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의집)	2015.9.19	도시
37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민간위탁(문화의집)	2016.3.30	도시
38	완주군		구이 생활문화센터	유휴	생활	직영	2016.8.2	농촌
39	장수군		장수한누리전당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직영	2015.12.28	농촌
40	전남		여수시	여수 예술인촌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직영	2015.4.27
41		화순군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문화원)	2015.12.28	농촌
42			화순읍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직영 주민자율(주민자치위원회)	2015.12.23	농촌
43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유휴	생활	직영	2015.8.3	농촌
44	경북	성주군	성주 생활문화센터	기존	거점	민간위탁(금수문화예술마을)	2015.8.26	농촌
45		상주시	상주 생활문화센터	유휴	거점	직영 주민자율(운영위원회)	2015.11.27	도시
46		영덕군	영덕 생활문화센터	유휴	생활	주민자율(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	2015.11	농촌
47	경남	거창군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유휴	생활	주민자율(운영위원회)	2015.10.20	농촌
48		밀양시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유휴	생활	주민자율	2016.3	농촌
49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기존	생활	민간위탁 주민자율	2016.3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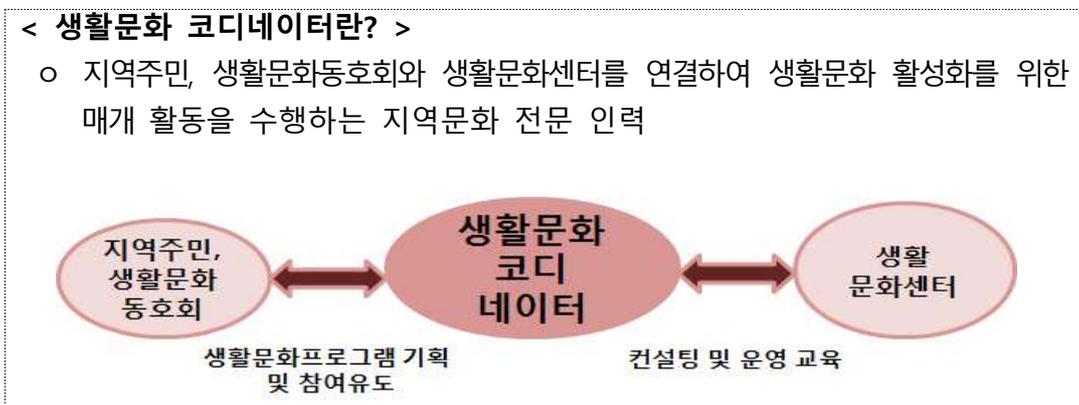
생활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주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컨설팅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내용>

사업명	내용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컨설팅	○ 생활문화센터 공간 구성 및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생활문화센터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현장 컨설팅 - 생활문화센터 조성과정에 따른 단계별 공간 구성 컨설팅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시컨설팅 ※ 6분과 운영(1개 분과 2명(공간계획 전문가 1명, 운영계획 전문가1명))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	○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교육워크숍 및 성과 공유회 -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및 담당자 통합 워크숍 - 생활문화센터 우수사례 및 진단을 위한 성과 공유회
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 구축	○ 권역 내 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간 정책 교류 지원 - 지역 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 개관 이후 운영 활성화 기반 위한 기획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기반을 위한 조사 연구	○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조사 ○ 생활문화센터 아카이빙 구축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 등
대국민 생활문화 인식제고 공감정책 홍보	○ 생활문화 온라인 거점 플랫폼 구축 ○ 생활문화진흥 정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생활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개관 운영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문화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문화 관련 시설 및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생활문화 매개자 및 촉진자의 역할과 필요에 의해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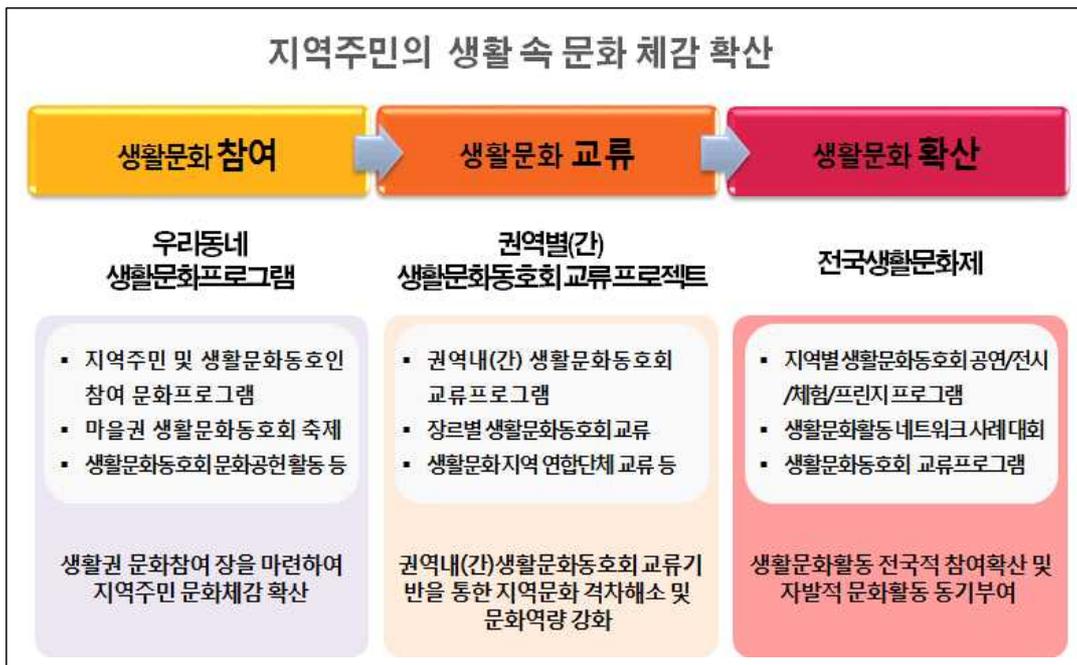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내용>

사업명	내용
2016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인프라 구축 - 예비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 밀착형 인재개발 방안 마련 ○ 선발대상 : 2016년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중 5인 선발 ○ 교육과정 : 생활문화전문가를 전담 튜터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 및 기본교육 : 생활문화센터 개념 이해 및 생활문화 관련 사례분석 - 현장답사 : 개관된 생활문화센터 답사를 통한 생활문화센터 현황 공유 - 현장조사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및 운영담당자 인터뷰 수행 - 실습교육 : 생활문화센터 선정하여 주민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성과분석 : 생활문화프로그램의 추진결과 공유 및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1개월) 50만원 지급/ 활동기간 월 150만원 지급 - 예비 생활문화코디네이터 교육과정 및 실습프로그램 북 제작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민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상에서 지역주민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생활문화 참여” – “생활문화 교류” – “생활문화 확산”의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방향>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내용
<p>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마을 단위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 및 생활문화동호회가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의 장 마련 ○ 내용 : 마을 생활권 내에서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 대상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연합단체 ○ 지원규모 : 41개 프로그램 선정, 1개 프로그램 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p>권역별(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프로젝트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생활문화동호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문화의 주체가 만나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지역의 생활문화 역량 강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장르 중심 지역 내/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연합단체 간 권역별 네트워크 프로그램 ○ 대상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연합단체 ○ 지원규모 : 12개 내외 권역, 25,000천원 내외 지원
<p>전국생활문화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의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자발적 문화 활동 동기 부여 ○ 일시/장소 : 2016년 10월 29~30(1박2일간)/북서울꿈의 숲 ○ 참여대상 : 전국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및 단체, 일반시민 등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표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전시프로그램 - 생활문화동호회 체험 프로그램 /동호회 교류프로그램 -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사례 대회

생활문화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참여가 확산되면서 생활문화가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각에서는 생활문화의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국가 개입주의’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생활문화를 단순히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으로만 이해하고 생활문화가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제대로 조명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생활문화의 바람이 이슈화되면서 지역 정체성도 없고 주민도 없는 생활문화라는 타이틀만 활용하여 다가서는 이슈정책으로만 인식하는, 단순한 보여 주기식 지원 정책의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지역문화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바람직한 생활문화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첫째, 생활문화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식 확산 및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성과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가 필요하다. 몇몇의 지자체 및 문화관련 기관들은 성과주의에 급급해 주민들의 참여를 정책지원이란 명목 하에 참가 사례비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예산지원으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물론 문화 참여 유도를 위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나 생활문화가 담고 있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목표가 아닌 긴 호흡을 통해 주민들의 주체적 문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접지원 형태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인내를 가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생활문화진흥 정책 목표 및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이외의 공공문화시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재단 등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사업의 공통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이는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저마다의 생활문화 관련 시설 및 기관들의 재원 및 사업방식 등에 따라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모색으로 관련 문화시설 및 기관들의 체계적인 상호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공통의 지향점에 대한 방향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공통적인 생활문화진흥 정책 목표와 설계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생활문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담겨 있는 생활문화 관련 내용 중 지역 내 생활문화 시설 및 관련 기관 등 일부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여 지역에서 생활문화진흥 정책 추진에 혼란이 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활문화진흥 정책을 위해서는 명확한 생활문화시설 규정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규정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과 지역에서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규(생활문화진흥조례)를 마련하여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생활문화시설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생활문화 관련시설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활문화지원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문화 참여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생활문화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정의는 바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적 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참여는 생활예술동호회 활동을 통한 참여도 있고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과 함께 공통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주민커뮤니티 활동의 참여도 있을 것이다.

생활예술활동이나, 주민커뮤니티 활동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민들의 주체적 문화 활동이 사회적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개인만이 즐거운 문화 참여가 아닌 이웃과 함께 즐거워야 하고 이러한 즐거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지역의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생활문화와 지역

이 수 철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생활문화와 지역

이 수 철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0. 세 분의 발표는 서로 다른 듯 보이기도 하지만, 맥락적인 차원에서 매우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논의를 나누어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발표 모두 현 시기 문화예술의 변화양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변화 양상은 관조와 승배의 대상으로서 문화예술로부터 일상에서 느끼면서 즐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지역) 속의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방향성을 가진 문화예술로의 전환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를 놓고 세 분의 접근의 결은 발표자의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 먼저 익히 잘 알려진 문화바람의 사례를 통해 문화동아리 중심의 생활예술 활동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술은 배제와 고립된 현대인, 즉 자존감 붕괴, 무력감, 불안이라는 일상적 고통 상황에 놓여 있는 개별화된 개인의 치유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보충과 수술 등 임상적 치유와는 다르게, 공감적 소통과 관계 맺기를 통한 방법일 것입니다.

수평적 소통과 협동을 예술 동아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상호존중과 사회적 인정을 통한 호혜적 연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생활예술을 설명하면서 생활예술을 통해 신뢰를 만들어 가는 사회자본의 축적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문화바람의 오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익혔던 보석 같은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 수렴’→‘동아리 욕구 맞춤’→‘생활예술 동아리 성장’이라는 한축의 정책과 시민의 욕구에 맞는 ‘공유 공간 시민 문화 공간 놀이터 만듦’→‘민주적 공간 운영과 성장’이라는 문화 공간 정책, 그리고 매개자 역할에 대한 고민,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인의 식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 등 현 시기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생활문화에 대한 현안을 망라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 강윤주 교수님은 세종문화회관의 생활오케스트라 축제를 사례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의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윤주 교수님의 논의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for culture)에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로의 담론으로 전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아마추어/전문가의 이분법적 구분의 극복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술생태계 내에서 전문/생활예술 오케스트라와 관객의 순환과정에서 이 세 주체가 상호순환 되고, 이러한 순환구조에서 생활예술오케스트라가 촉진제 역할을 하는 생태계를 제안하고 있다.

3. 고영진 사무관님의 논의는 앞서 논의한 두 분의 발표 내용을 우리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윤희유로서의 정책적 차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적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센터는 단순히 공간적 인프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정책적 공간으로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생활문화센터가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들이 생활문화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공간 속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지원체계를 만들고,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될 수 있는 사람(생활예술가 시민, 문화매개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문화센터라는 사회 정책적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생활문화 정책의 과제와 미래에 많은 정책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세 분의 발표는 저를 포함해서 생활문화정책과 사업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일상적 만남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서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발표를 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지침과 논의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생활문화 지역특성화'를 논의하는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세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 성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해온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활문화정책 사업의 의미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4-1.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의 민주주의와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의 정책을 동시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중 문화 진흥국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문화민주주의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단기간에 문화의 민주주의(수월성)와 문화민주주의(접근성) 모두 개별적 성공을 이루었고, 수도권외의 기초재단으로서 성남 문화재단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단계(2006~2008)	2단계(2009~2013)	3단계(2014~2020)
기초다지기	구조세우기	구조강화하기
시민주체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문화공동체 시스템 만들기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강화하기

철저한 계획(개념화, 목표 설정, 실행방안 구축)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였고, 문화재단과 시민, 외부전문가들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대외적인 평가도 좋았고, 내부적인 성취감도 높았습니다.

4-2 그러한 성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 초기의 의욕과 성취감은 감소하고, 현재는 사업을 단지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사업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 생활문화정책 사업의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나,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3. 먼저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사업은 사랑마루라는 중간지원기관과 매개기관(인력) 확보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정치 환경(의회 반대) 등으로 예산 축소 등 정책 자원의 감소로 어쩔 수 없는 정책선회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 자체의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전국적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으면서 사업의 본질이 의도하지 않게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모범사례→정책적 관심 부각→사업의 형식화와 수량화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업주체들은 사명감과 활동 의지는 높으나, 현재 다양한 장벽과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벤트화 되고 관성화 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민선 6기의 공약 중 문화에 관한 가장 으뜸 공약은 ‘생활문화수도 성남’입니다. 정책적 관심의 증가로 많은 지원과 이에 따른 정책의 발전을 기대했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이 나열식 이벤트화의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참여 시민의 객체화 되면서 사업의 재단 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방 사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수평적 사업 진행이라기보다는 계속 활발하게 참여한 클럽의 그들만의 리그(닫혀가는 시스템)가 될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5. 앞서 발표한 세 분의 논의는 생활문화정책의 훌륭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귀한 논의입니다. 이 논의는 저희 성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성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은 그 지역만의 많은 변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종종 발생하여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생활문화정책이 지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당사자들, 정책당국, 인프라 등의 결합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여기 참여한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지역공동체에서 생활문화의 역할’에 대한 발제문을 읽고

김 수 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선임연구원)

발제자 임승관의

‘지역공동체에서 생활문화의 역할’에 대한 발제문을 읽고

김 수 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선임연구원)

임승관 대표는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의 글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임 선생님의 글은 이 시대의 예술의 역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 등을 담아 생활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예술과 다른 생활예술의 기능이 특히 예술 수용자인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크고 다른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예술 수용자들의 문화를 만들어내신 문화바람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도 감동적인 일인 듯합니다.

선생님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떠오른 몇 가지 질의와 생각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생활예술’과 ‘생활문화’의 용어 혼용에 대하여

발제문을 보면, 생활문화 활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 - (발제문 2p, 2paragraph) 중심문화, 사회적 담론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는 생활예술의 사례는 매우 매력적인 민주주의 실현과정이다 - 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생활예술’이라는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마을의 담장이 사라지고, 동네공부방이 생기고, 반찬가게에 사회적 경제활동이 부여된 것은 생활예술의 용어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예술의 기능이 생활 현안을 품어내 생활 속의 곤란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기능을 설명하셨는데, - (발제문 2p, 3paragraph) “생활예술의 치유기능은 고통을 위로하고 잊게 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고통을 드러내고 원인을 대면하여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예술이 다양한 생활현안을 품어 생활 속 곤란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이 구별된다.” - 그 또한 비단 생활예술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면으로 확장된 생활문화의 활동 현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모든 생활양식(의,식,주)을 미학적 관점으로 디자인한 형태를 ‘생활예술’이라고 통칭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대개 생활예술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행위가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취미 활동이나 단순히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용어의 사용에 대한 정립과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구분과 개념 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2. 생활문화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착과정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생활문화 활동과 사업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 활동과 사업의 방향은 올해 이루어진 ‘플랫폼사업’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플랫폼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생활문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의의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역에서 일어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무엇으로 볼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민문화, 마을사업, 공동체 운영 등의 실무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지난 2년간 시도되다가 사라질 위험에 있었던, 문화의집의 편의점 사업과 디자이너 양성 과정입니다. 편의점처럼 각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한 자리에 모으고 전시해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본 모델이 지니고 있던 긍정적인 취지와 의의를 흡수하되 경기형에 맞춰 변형, 발전시킨 사업이 경기문화재단의 플랫폼 사업입니다. 일반 시민 각자가 지닌 재능을 격려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발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신의 작업공간을 공개하거나 이웃의 거주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공동체의 관계성을 추구하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나눔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 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가미한 내용을 기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로 유명한 이천의 경우는, 오랫동안 집에서 쌀로 술을 빚어온 아주머니가 생활문화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술 빚는 부엌과 조리재료, 도구 등을 동네사람들에게 특정일에 오픈하여 술 빚는 방법을 나누거나 주도를 교육방식으로 디자인해서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도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면 주도를 가르쳐주는 동네 아저씨가 생활문화디자이너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기획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디자이너 양성과정의 내용인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민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양성, 플랫폼 공간 확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지역에 체감적으로 정착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길러진 자신의 재능을 주변사람들과 자발적으로 나누고 싶어지는 문화 환경의 구성, 그것이 궁극적으로 생활문화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예술이라는 용어가 지닌 근대적 개념으로부터의 바람직한 탈출이며, 시대를 반영한 진정한 이해와 새로운 개념읽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생활문화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착과정에 대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공간 거점의 활성화와 문화수용자의 주인의식에 대하여

임 선생님의 마지막 챕터는 ‘주민의식과 자생력 지원’에 대한 글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지원 정책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생활예술의 지원이 일반 예술지원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적동기가 중요한 생활예술의 공간 속에서 사용자들 스스로의 주인의식이 없이는 공간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결국 허물어지게 된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번에 새롭게 일구어가는 경기문화재단의 거점 공간 확보와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플랫폼 사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17개 지역의 16개 거점은 일단 문화원, 문화의집을 포함하고 있지만 30%의 민간 생활문화 활동공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본 사업이 지원 방법에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지점이 바로 사업기간이 끝난 후까지 이어질 거점 운영의 방식과 프로그램 운영의 자발성 확보의 지속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고 고치려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던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으고, 정리해서 언제라도 원할 때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축제를 지원할 때에도 플랫폼에서는 동네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서로가 교류가 가능하도록 센터역할을 할 뿐, 실제 행위가 벌어지는 장은 각각의 디자이너가 설정한 자신의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공원을 사용하거나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안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자신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거실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공간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재생하는 역할 또한 생활문화 활동과 지원의 지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생활문화의 ‘자발성’이라는 핵심적인 성격이 관주도의 문화정책을 만나서 스스로를 분해하고 폐쇄하는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문화의 향유자와 행위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재단에서는 작은 단위의 직접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본래의 의의나 취지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조사하고, 그들의 의도와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임승관 대표의 문화바람의 경험과 시행착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광역 문화재단의 정책수립 과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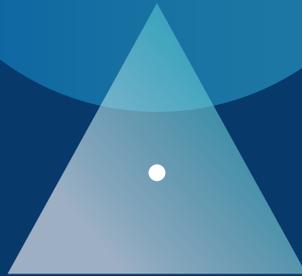
생활예술에 초점을 맞춘 임승관 대표의 글을 시작으로 하여, 생활문화의 전반적인 고민들과 광역 문화재단이 지니고 있는 생활문화 정책사업의 문제의식들이 함께 제기되어 의미있는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모색의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생활문화 지역특성화 방안모색 포럼
시민 자생적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방안

기획•구성	(재)대구문화재단
발행인	심재찬
발행일	2016년 10월
발행처	(재)대구문화재단
주소	700-755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전화	053-430-1221
팩스	053-422-1219
홈페이지	www.artinlife.or.kr

※본 책에 실린 모든 내용에 대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DFC |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전화. 053-430-1221 홈페이지. www.artinlife.or.kr